



광양시 보건소, 치매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

치매예방지도자 양성 등 차별화된 시책 인정



광양시 보건소가 전남치매광역센터에서 주최한 치매발견대회에서 '2017년 치매관리사업 우수 보건소 및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6일 순천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이날 치매발견대회에서 치매 관련사업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정보를 공유하고 발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치매예방을 위해 총8회로 구성된 '두근두근 뇌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상자들의 기여력과 주의력, 시공간능력 등 두뇌 전반적인 인지능을 향상을 유도했다.

또 가정에서도 꾸준히 인지훈련

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지 훈련법의 구체적인 방법과 숙련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을 통해 양성된 치매예방지도자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는 치매치료와 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치매 없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 전남에서 최초로 치매예방지도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에 진행하고 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은 "세계적 추세인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춰 치매의 예방·발견·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치매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없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치매 없는 건강마을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시, 겨울철 수돗물 탁수예방 총력 기울여

광양시가 겨울철 수돗물 탁수에 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말까지, 47개반 24명으로 T/F 팀을 구성하고 배수지 11개소 48,961톤 대해 일제히 청소를 실시했다.

또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에 망간사 12톤을 투입해 망간처리시설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원수 망간농도가 정수수질기준(0.05 mg/L)이내인 0.02~0.03 mg/L로 나타났으나 기온이 더 낮아지면 수어택의 전도현상(수온차이에 의해 물이 섞이는 현상)으로 고농도 망간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5일부터 망간수질검사를 주 3~4회에서 1일 1회로 강화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어택 수질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화순군 저출산 위기극복 청사진 나왔다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화순군이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에 발 벗고 나섰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도내 최저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초에 출산보육담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군민 기초설문조사 및 부군수를 팀장으로 TF팀 운영, 관계 전문가를 구성한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군은 종합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 내년부터 가능한 사업은 바로 추진하고, 국도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모에 입하는 등 종합계획안을 차질 없이 추진기로 했다.

6일 화순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주민, 공무원 등 27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출산양육 아동복지 종합계획안에 대한 가정활동과장의 설명을 비롯해 저출산 위기와 대책에 대한 광주전남연구원 민현정 책임연구위원과 초당대학교 이경미 교수,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윤명심 본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동산대학교 배양자 교수의 주제로 토론회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화순군의 출산양육 아동복지 종합계획안은 중점 추진 사업과 계속사업 등 57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중점추진사업 4개 분야 19개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형 일자리 역량강화 위한 이노베이션 랩 개회

혁신적인 지역고용거버넌스의 구축

순천일자리센터는 최근 순천만 S호텔 3층 연회장에서 지역일자리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주관하고, 순천일자리허브센터와 순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이노베이션 랩은 지역 일자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행정 기획 역량을 보유한 네트워킹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전문 지식과 트렌드를 교육하고 논의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고용 거버넌스

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노동시장과 지역일자리 정책'이라는 주제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강연하고 순천 내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일자리 정책 접근에 있어 지역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서 지역 맞춤형 개발로 발전해야 함을 국내 외 우수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요소를 발표했다.

특히, 자치단체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일차적인 일차 사업보다는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단계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매월 1회 총 9차로 진행될 이노베이션 교육은 앞으로 순천 내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들과의 일차리·행정 기획 역량을 발전시켜 네트워킹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진전이 보여 진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노안분점' 개소

경영비 절감 및 농업인 편의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실현 기대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노안분점이 지난 5일 개소했다.

지난 2010년에 개소한 동수동 사업소 분점을 비롯해 금천면 문평면 남평읍, 봉황면에 이은 6번째 분점 개소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영농철 트랙터, 농임용 굴착기 등 값비싼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을 위해 일정기간 저비용으로 임대해주는 시설이다.

나주시는 권역별 분점 개소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에 개소한 봉황

분점과 금번 노안분점은 해당 지역 단위 농업이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역 농업적 특성을 고려한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재운 나주부시장을 비롯한 지역 농협, 농업 단체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테이프 커팅, 시설 및 농기계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조재운 나주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나주가 전국 최초로 2009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한 이래, 분점을 포함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영농철 지역 농업인을 위한 활력소가 되고 있다"면서, "농기계 사용 시 애정을 갖고 내 재산처럼 소중히 사용해주시길 바라며, 오직 농업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하했다.

나주시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해 △농작업 대행 사회적 기업 위탁, △마을단위 작업단 운영, △임대사업소 농업 위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초경량 비행장치인 '드론' 자격증 반을 운영하는 등 농업의 4차 산업 대응 및 활성화를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순천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 최종 현지실사

이달 중 공인 획득 내년 3월 공인 선포식 계획



순천시가 안전 제의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최종 현지실사를 받았다.

이번 실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OC) 심사위원인 Lu Pih(대만) 심사단장과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이 참가했으며, 안전도시 사

업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교통안전, 노인안전 등 7개 분야에 대해 실사가 진행됐다.

순천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안전 네트워크 구성 및 손상사망률과 5대범죄 발생률 감소, 교통문화

지수 향상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실사에서 이를 인정받았다.

이번 실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최종관문으로 심사단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순천시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게 된다.

국제안전도시란 '사고와 손상으로 부터 이미 완벽히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 14개 도시가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이번엔 순천시가 공인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15번째가 되며 전라남도에서는 최초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공인 획득이 12월 중에 결정되면 내년 3월 공인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공인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사업 추진으로 국제안전도시로서 위상을 세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